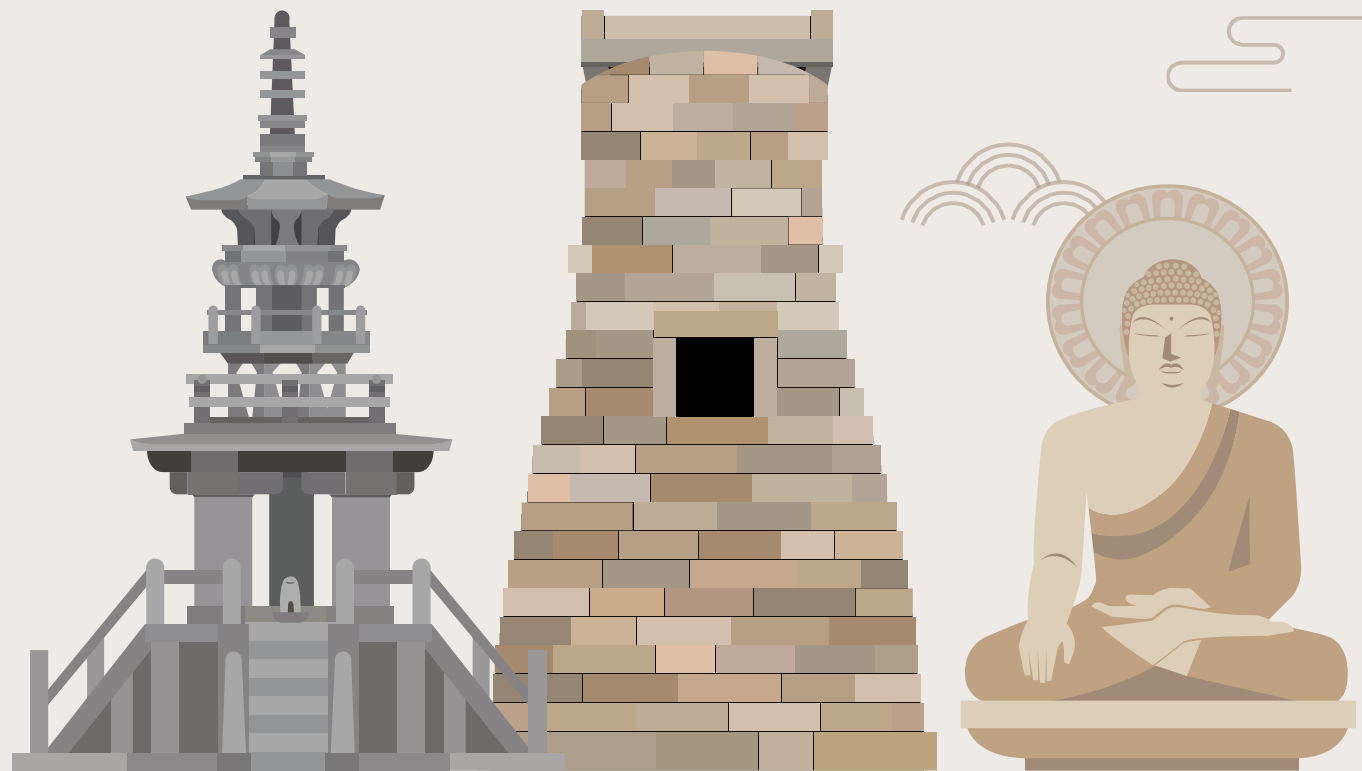


카드뉴스 제99호 | 국가유산

국가유산, 지키는 것에서 함께 누리는 것으로



'문화재' 대신 '국가유산' 체계로.. 10명 중 4명, 명칭 변경 사실 "알고 있었다"



Q '국가유산' 용어 사용 인지 여부 (전체 1,028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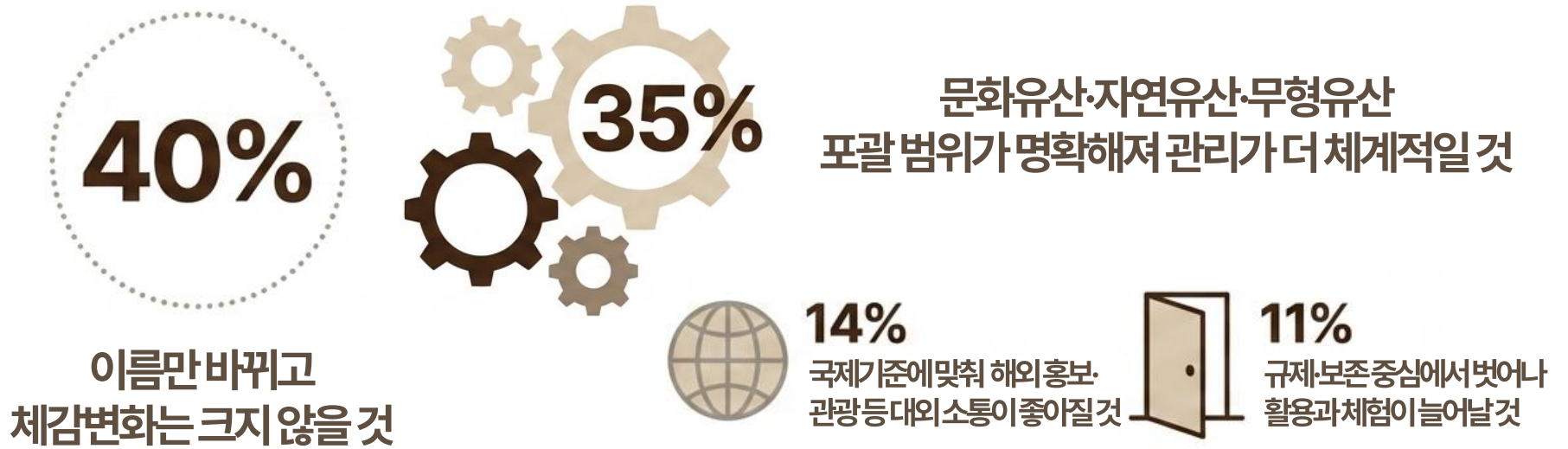
2024년 5월 17일부터 법·행정 용어 '문화재'가 '국가유산'으로 바뀌고, '문화재청'은 '국가유산청'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. 문화재를 유산의 차원에서 정의하고, 유네스코(UNESCO)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, 국가유산을 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.

(출처: 국가유산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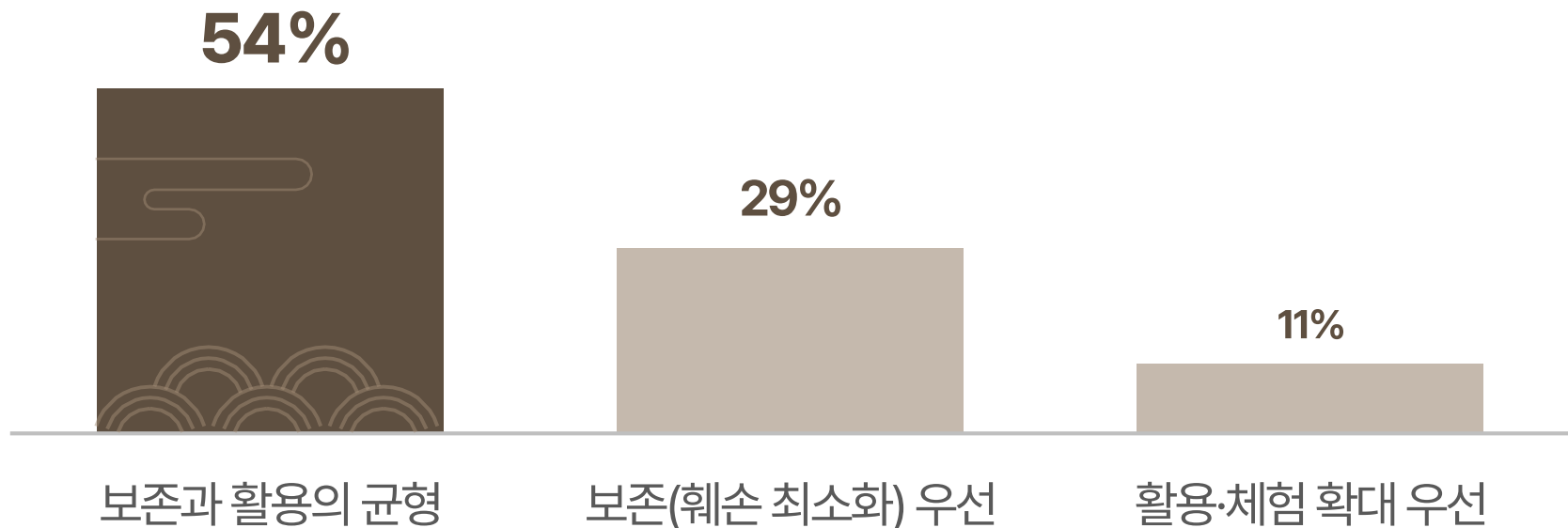
국가유산 체계 전환으로 체감 큰 변화 없을 것(40%) 과반수 보존과 향유의 '균형'이 가장 중요하다



Q 국가유산 체계 전환 후 기대 변화 (전체 1,028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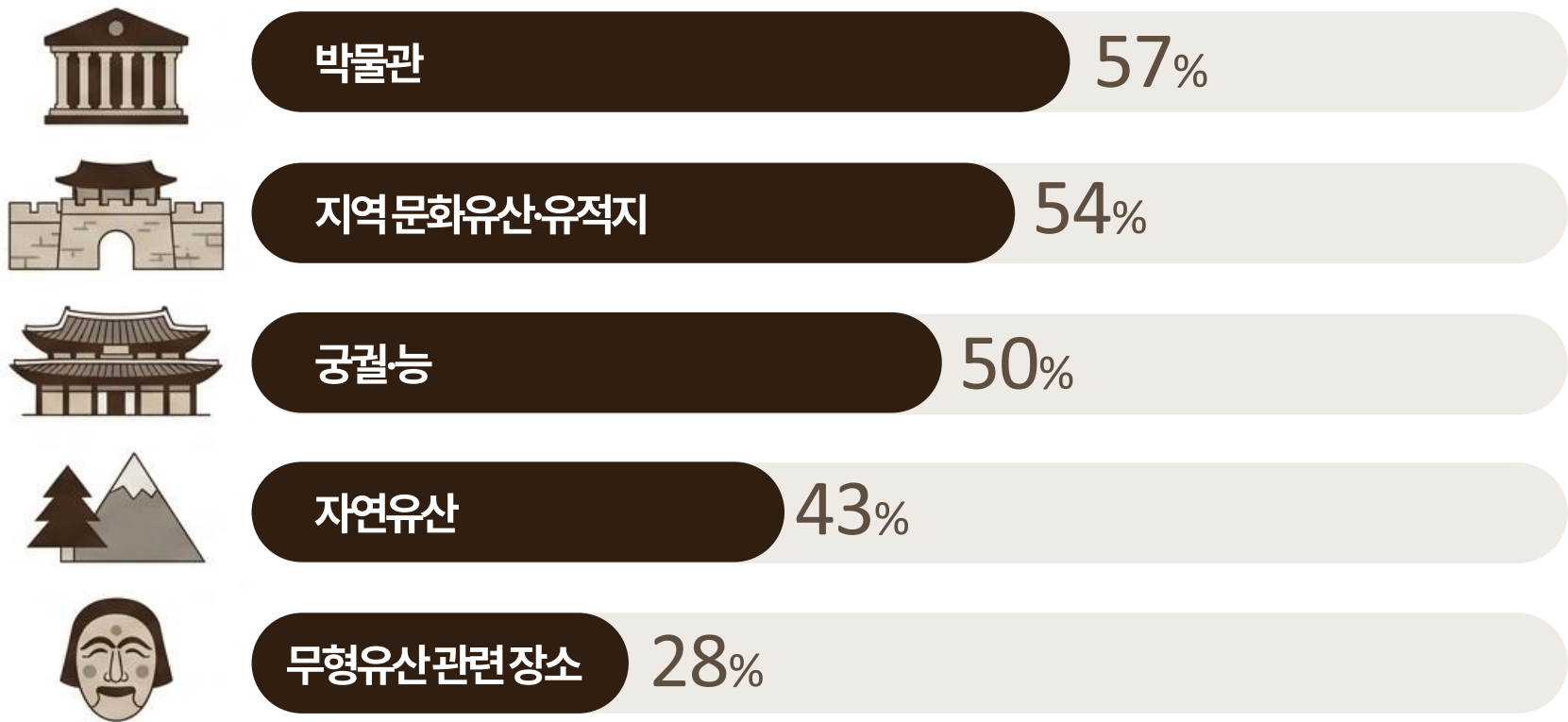
Q 국가유산 정책 우선 순위 (전체 1,028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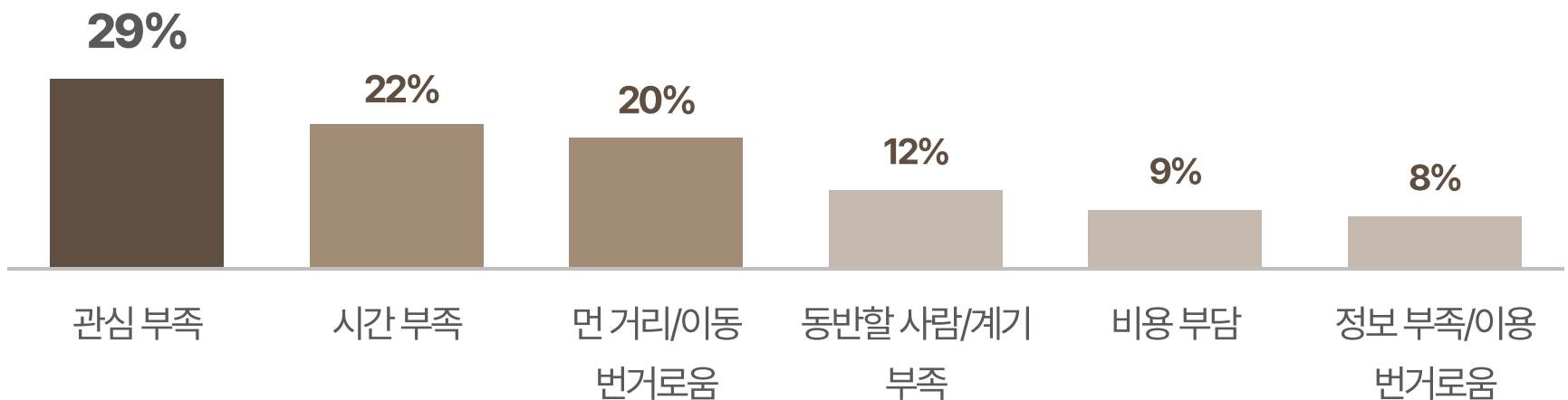
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유산 관련 장소는 '박물관' (57%) 유산 방문하지 않는 이유 '관심 부족'과 '시간 및 거리 제약'



Q 최근 1년 국가유산 관련 방문 경험 (전체 1,028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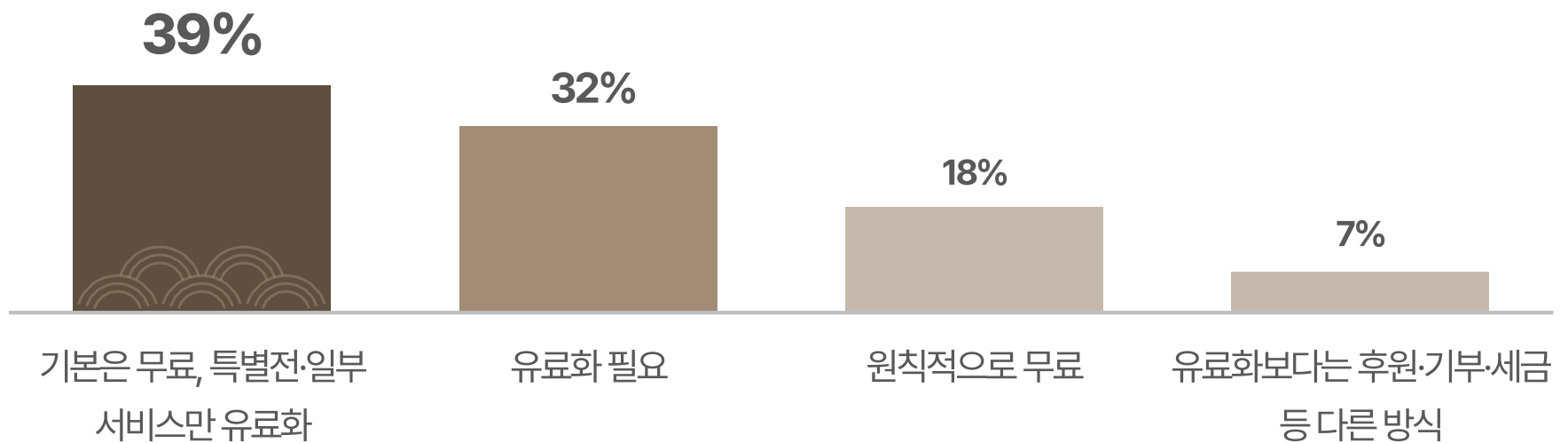
Q 방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(모두 방문 경험 없다 응답자 244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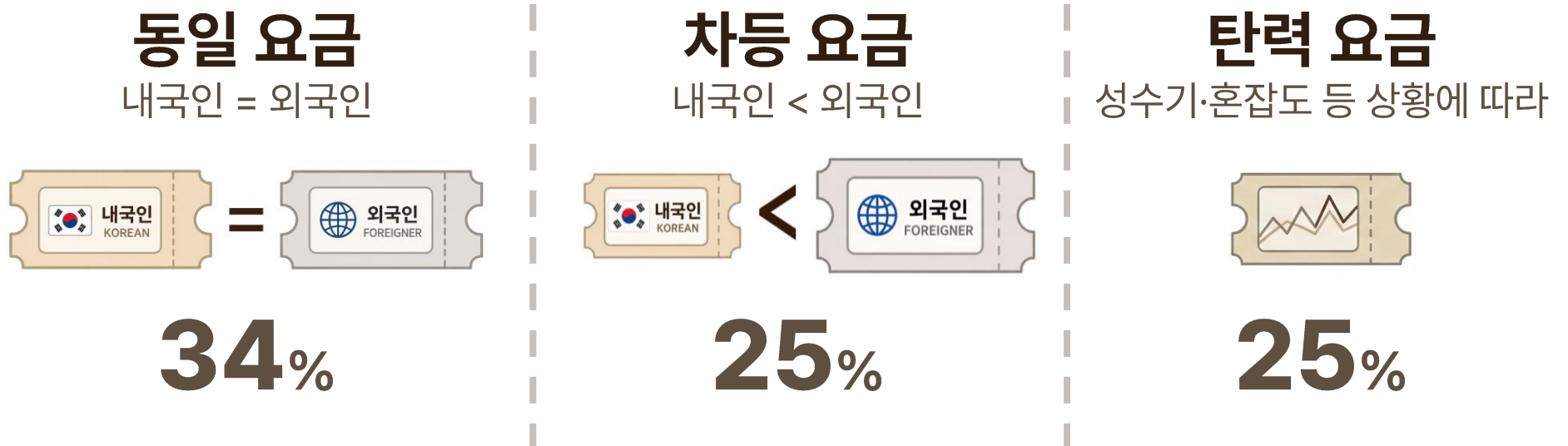
국립중앙박물관 요금, '선택적 유료화'가 바람직(39%) 외국인 관광객 관람료는 내국인과 동일 요금 선호



Q 국립중앙박물관 입장 유료화에 대한 인식 (전체 1,028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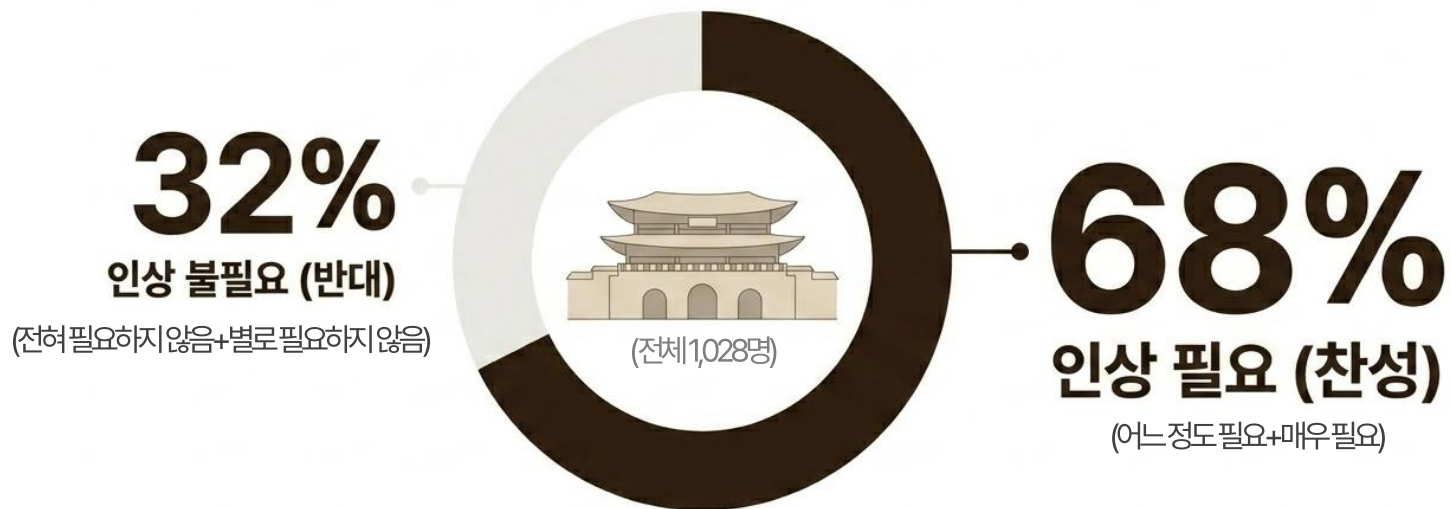
Q 외국인 방문객 관람료 적용 방식 (전체 1,028명)



공능 관람료 인상, 10명 중 7명 "필요하다" 인상 반대측은 '관람 접근성 하락'과 '세금 이중 부담' 우려



Q 공능 관람료 인상에 대한 인식



인상 반대 이유

(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325명)

접근성이 낮아질 것 같아서 **29%**

이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추가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**29%**

공공서비스 성격상 현재 수준 (또는 무료)이 바람직해서 **28%**

물가 부담 등으로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**14%**

인상 찬성 이유

(필요하다는 응답자 703명)

보존 관리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해서 **47%**

관람 서비스 개선(해설·시설·동선 등)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**23%**

이용자 부담이 일정 수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**16%**

혼잡 완화/질서 있는 관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**13%**

보존을 넘어 향유의 시대로
우리가 함께 누리는 유산, 지금 더 가까이 마주할 때입니다

조사기간

2026.04.10.~13.

조사방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사대상

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,028명



케이스탯은 품질 높은 데이터 생산을 바탕으로
고객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사이트와 컨설팅을
제공해 드립니다.

... **Kstat** ...



🏠 <http://www.kstat.co.kr>

📍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

☎ 02-6188-6000

✉ admin@kstat.co.kr